

새정부 호남 인적 네트워크 없어지나

호남 현안 촉구 창구역 사라질 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이 영남 편향으로 이뤄진 데 이어 10일 단행된 새 정부의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인선에서도 광주·전남 등 호남 출신이 단 한 명도 기용되지 않았다.



새정부 수석 인선 발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삼성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 초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내정자 명단을 발표하며, 이들을 소개하고 있다.

호남 각료 전무시대 오나=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에 이어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인선도 영남 편향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각료 발탁에서도 영남 색채가 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남 편중... "정책 우선 순위에 호남 밀리나" 큰 우려 5공~문민정부때도 차관급 이상 호남 인사 12% 불과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도 과거 영남 정권과 같이 특정 지역 출신이 득세하고 호남 출신은 상대적 한계에 배치되는 인적 구조가 형성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 각료의 적절한 지역안배를 통한 사회통합 노력을 포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역출신인 김종민 전 검찰총장의 법무부 장관 기용과 이만희 전 환경부 차관의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포함) 가운데 영남 인사는 499명(42%)에 이른 반면 호남 인사는 144명(12%)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정권 핵심부처와는 거리가 먼 한직에 기용됐다.

급 이상 공직자 가운데 호남 출신은 전체의 33%인 131명으로 90명(22%)에 그친 영남 출신을 추월했다. 호남 출신 장관만 해도 44명(광주·전남 33명)을 배출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우상호 대변인은 1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이날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인선내용을 발표한 데 대해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은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영남 출신의 서울지역 교수 모임"이라고 비판했다.

신당 "靑 수석은 영남출신 서울지역 교수 모임"

서 가장 지역색을 노골화한 인사라고 비판 받을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인사를 비판해 온 이 당선인이 처음 한 수석 인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또한 지나치게 대학교수 위주로 진용을 짠 것은 이분들의 학식과 경륜을 반영하겠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설익은 정책을 낱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불식되기에

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찬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7명 중 무려 5명이 영남 출신이고 호남과 충청, 강원, 제주 출신은 전무하다"면서 "출신 분야에서도 6명이 교수 출신, 서울대·고려대 등 특정 2개 대학 출신이 5명에 달하며 전공학문과 연령, 성별 측면에서도 편중된 모습이 두드러진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수석·대변인 프로필

후 당선인 싱크탱크

곽승준 국정기획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원'의 핵심 멤버로 뛰며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이 당선인의 대표공약을 개발한 학자 출신 브레인.



정부 조직개편 주도

박재완 정부

정통관료 및 행정학 교수 출신의 정책통 초선의원. 인수위에서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주도.



5·18 수사 지휘 특수통

이종찬 민정

서울지검 특수1·2·3부장 3차장,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및 중수부장을 거치면서, '올곡비리 사건' '12·12, 5·18사건' 등을 수사·지휘한 '특수수사의 산증인'으로 불린다.



대입 3단계 자율화 기초 이주호 교육과학

한나라당의 '교육 브레인'.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원내에 입성한 후 졸업 국회 교육위 간사를 역임하며, 이 당선인의 대입 3단계 자율화 공약의 골격을 마련하는데 일조.



'MB노믹스' 추진 주도

김중수 경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역임한 합리적 시장주의 학자. 대외 개방과 시장의 자율, 경쟁 등을 중시해 이른바 'MB노믹스'를 실현할 책임자라는 평.



복지정책 전문가

박미석 사회정책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울복지재단 초대 대표이사로 발탁돼 '서울사랑 나누미' 봉사활동을 주도했던 복지정책 전문가.



인촌 김성수 선생 손자

김병국 외교안보

동아일보를 창업한 인촌(仁村) 김성수 선생의 손자로,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학사와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학계의 대표적인 미국통. 7년전부터 동아시아의 외교·안보 문제를 연구하는 동아시아연구원을 창립해 원장을 맡고 있다.



동아일보 정치부 출신

이동관 대변인

정치부 기자로 잔뼈가 굵은 정통 언론인 출신. 이 당선인 진영에 공보특보로 합류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으로 활약.



인사말씀 (Insa-malssum) - A formal condolence message in Korean and English, including names of family members and the date 2008.2.11.